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 2019. 1. 8

위원정수 : 7명

재적위원 : 7명

1. 일 시 : 2019. 1. 15(화) 11:00
2. 장 소 : 본 대학 205호 회의실
3. 참석위원 : 손화희(위원장, 교원), 구건서(교원), 유상기(직원),
김진희(총학생회장), 고정윤(대의원회의장), 임출리아지영(동아리연합회장),
박승식(세무사) 이상 7명
4. 불참위원 : 없음
5. 안 건
 - 가.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 나. 전공심화과정 등록금 책정(안) 심의
 - 다. 시간제등록금 책정(안) 심의
6. 회의내용
 - 위원장은 먼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다.

 - 위원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우리대학의 등록금 정책을 간략히 소개하며 2012학년도 5% 인하, 2013학년도 1% 인하에 이어 2014~2016학년도 3년간 동결, 2017학년도 1.5% 인상, 2018학년도 1.8% 인상하였지만, 우리대학이 서울소재 타 대학 평균 등록금액에 비해 10%(연간 612천원)정도 낮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은 우리대학 등록금이 서울 전문대학 중 국립대학과 특수대학을 제외하고 낮은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정부가 입학금을 입학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서 우리대학도 동참하여 2017학년도 입학금 661천원의 13.4%인 88,574원을 5년간 감축(안)을 제안하고, 수업료는 교육부에서 「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산정방법 공고」를 통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을 2.25%이하로 공시하였지만,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및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전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8% 인상(안)을 제안하다.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자료를 배포하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다.

-위원장은 2019학년도 수업료 1.8% 인상은 학생 1인당 연간 계열(학부)에 따라 약13~15만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하다

-또한 위원장은 2019학년에 신입생과 현재 1학년 재학생이 2학년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금 수입액을 산정하였더니, 2018학년도 수입액보다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다.

-김진희위원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위원장은 현재 우리대학 등록금은 서울지역 타대학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등록금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운영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등록금 수입 감소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인상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하다.

-유상기위원은 2019학년도는 입학금 감축과 더불어 계열(학부)정원 조정으로 수업료가 감소하여 등록금 수입액도 자료와 같이 감소하고, 2019학년도 등록금 법정인상률 2.25% 이내인 1.8%를 인상할 경우에도 서울지역 타대학 평균등록금보다 낮다고 위원장 의견에 동의하다.

-박승식위원이 입학금을 단계적 감축하는 정부정책 따라 2018학년도에 이어 2019학년도에도 입학금을 88,574원 감축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어서 위원들은 참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김진희위원의 동의에 이어 구건서위원이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 전원 찬성하여, 2019학년도 입학금은 단계적 감축, 수업료는 1.8%인상하는 것으로 가결되다.

-위원장은 다음 안건으로 우리대학 전공심화과정 등록금 책정에 대한 의견을 묻다. 자료를 검토한 후 전공심화과정 등록금 또한 2019학년도 등록금과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건서위원의 의견에 박승식위원이 동의하고 고정윤위원이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 전원 찬성하여, 재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가결되다.

-위원장이 다음 안건으로 시간제등록금 책정에 대해 우리대학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생 수강료가 3학점 3시수 21만원, 3학점 4시수 과목 경우 25만원으로 1학점당 7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학습자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의견을 묻다.

-구건서위원이 시간제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다.

-임출리아지영위원이 동의하고 유상기위원이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 전원 찬성하여,
시간제등록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위원장은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2019. 1. 15

위 회의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위원장 손 화 희 (인)
위 원 구 건 서 (인)
유 상 기 (인)
김 진 희 (인)
고 정 윤 (인)
임출리아지영 (인)
박 승 식 (인)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19. 1. 15

송의여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장

송의여자대학교총장 귀하